

서울 봉은사가 조계종의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3억 원을 보태며 힘을 불어넣었다. 사진 왼쪽부터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김상훈 신도회장.

서울 봉은사, 백만원력결집 3억 원 전달

11월 27일 초하루법회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 법문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서울 봉은사가 큰 힘을 보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1월 27일 지난 4개월간 발우저금통과 CMS 등으로 모은 백만원력 결집 기금 3억여 원을 종단에 전달했다.

이날 초하루법회를 맞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직접 봉은사를 찾아 법문하고, 봉은사는 800여개의 발우저금통을 종단에 후원했다. 봉은사는 그동안 신도회, 교역직 스님과 종무원, 산하시설과 CMS 등을 통해 기금을 모아왔다. 특히 봉은사 신도회는 2억 원을 약정하면서 백만원력 결집에 동참했다. 전달식에서는 800여 저금통이 유리탑 속에 담겨 장관을 이뤘다.

신도회서 2억 원 약정 눈길
저금통 · CMS 등 4개월 모아
스님과 종무원도 함께 동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백만원력 결집은 불자들의 원력을 통해 한국불교의 가장 중요한 불사를 이루는 공덕"이라며 "불자 한명 한명의 정성이 담긴 만큼 소중히 불사에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원행 스님은 또한 초하루법문에서 최근 파키스탄 정부 초청으로 간다라지역 순례를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불자들이 성지순례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 성불하는 것이 가장 큰 의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정토에는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수행하고 복을 지어야 한다"며 "성지순례하면서 공덕을 기리고 함께 수행하는 기간을 갖자. 갈 수 없다면 책과 사진을 통해서라도 마음속으로 성지를 기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신도회의 적극적인 백만원력 결집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작은 원력으로 힘을 보태면 큰 원력이 된다. 그리고 끝내 모두의 원력이 이뤄진다. 사부대중 모두 원력의 중요성을 느끼고 함께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내년 예산 천태종 299억 · 진각종 221억

조계종 외 주요종단, 올해 대비 소폭 증가

천태종 올해 대비 18억 증가
종의회 분과별로 예산안 심의
진각종 인건비 등 일부 증가
운영비 · 관리비 등은 감소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이 최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총 1055억 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천태종과 진각종 등 한국불교 주요종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됐다. 천태종은 299억, 진각종은 221억 원으로 올해 대비 소폭 증가한 예산안을 수립했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원)는 11월 22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10차 정기종의회 본회의를 속개하고 2020년도 총무원과 종의회, 감사원 등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해 금강대학교 등 산하기관, 재단법인 대한불교천태종 예산안을 심의, 일반예산 총 299억2289만8600원을 확정했다.

내년도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일반예산은 219억3999만8600원, (재)대한불교천태종 일반예산은 79억8290만원으로 올해 총 일반예산 282억 원에서 약 18억 원 늘어났다.

천태종 종의회는 앞서 20일 개회한 정기종의회서 총무 · 법제 · 재무분과위원회별로 담당 부서워 산하기관 예산안을 검토했다.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경천)는 △총무원 총무부 · 교무부 · 교육부 △기획실 · 전산국 △금강신문을,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덕해)는 △감사원 △규정부 △사회부 △천태종복지재단 △(사)나누며하나되기를, 재무분과위원회(위원장 보광)는 △천태종 세입세출 예산안 △천태종 특별 예산안 △재단법인 천태종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등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종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난 뒤 종정 도용 스님은 "종단의 법 질서가 무너지면 인재를 키울 수 없다. 그래서 법을 다루는 종의회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종의회 의장 도원 스님은 "제110차 정기종의회를 증명해주신 종정예하를 비롯해 각 원장 스님, 예산안을 함께 심의한 종의회 의원들게 감사하다"며 "종의회 의원들은 천태종이 일체중생의 귀의처가 되도록 크게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각종 종의회(의장 관천)는 10월 24일 서울 총인원내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서 제419차 정기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내년도 통리원 · 교육원 등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심의해 총 221억6000여만 원으로 확정했다. 핵심 중앙종무기관인 통리원은 131억1000만원, 교육원은 7억30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됐다. 진각종 내년 예산은 인건비 등이 소폭 증가한 반면, 각종 운영비과 관리비 등은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진각종 종의회는 보궐선거를 통해 대구 낙산심인당 주교 호당 정사를 제15대 의원으로 선출했다. 호당 정사는 1990년 밀각심인당 교화보조를 시작으로 총지 · 여래 · 실상 · 득도 · 심지 · 탑주심인당 주교와 진각대 교무국장, 진선여중 주임정교, 포교 · 총무 · 기획국장, 서울교구 종무국장, 제12대 종의회 의원, 통리원 기획실장, 사회부장, 총무부장, 진각복지재단 상임이사, 비로자나청소년협회장, 밀교신문 편집인, 서울교구청장, 유지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종의회는 11월 18일자로 유지재단 이사 임기가 만료된 호당 정사(대구 낙산심인당 주교) 후임에 능원 정사(서울 탑주심인당 주교)를 추천했다. 또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교육)에는 덕운(수원 유가심인당 주교) · 도진(대구 의밀심인당 주교) 정사를, 감사에는 선일(대구 길상심인당 주교) · 원암(광주 영광심인당) 정사를 각각 복수 추천했다. 이밖에 서울교구 실상심인당, 전라교구 식재심인당, 부산교구 정제심인당을 신축키로 의결했다.

"총림해제, 주지 책임지고 용퇴를"

백양사 대책위원회, 주지 향해 책임론 제기

"중앙종회 결의 존중한다"
방장 문도 · 주지 측 제외한
승랍 20년차 이상 뜻 모아
지선 스님 문도 입장 발표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과 前방장 지선 스님 상좌들이 고불총림 해제와 관련해 의문을 던진 가운데, 백양사 대중이 주지의 용퇴를 촉구했다.

'백양사 총림해제 수습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2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중앙종회의 총림해제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이번 문제를 다루며 총림 구성원과 상의조차 없었다는 이유로 주지 토진 스님에게 사퇴를 제안했다.

백양사 대책위는 "그동안 종회로부터 총림 실사를 통해 총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 지적이 꾸준히 있었으나 백양사 주지스님은 일말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지는 물론 백양사 집행부 누구도 종회의원이나 종단 관계자를 만나 설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마치 해제하려면 해보라는 식의 배짱과 방관만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현 주지스님이 소임을 맡은 후 지금까지 대중과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지스님을 추천한 방장스님까지 원망하는 단계에 이를 정도로 백양사 대중은 철저히 소외됐다"면서 "현 소임자를 제외한 백양사 대중 누구도 총림을 해제한 중앙종회에 원망하는 이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준다. 백양사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총림을 해제해 재도약의 발판을 삼자는 대중이 많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백양사 명부전의 지장보살과 시왕상을 만세루로 옮기고, 공사비를 들여 명부전을 납골당으로 변화시킨 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불선원을 재가보살선원으로 바꾼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주지스님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일부 시민단체와 장성군의회, 전남도의회 등 관련도 없는 재가에 전혀 다른 사실을 전해 탄원서를 내게 하는 웃지 못 할 행동이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엄청난 사태에도 대중과 소통한 적이 없으니 주지스님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백양사는 선대 조사스님들의 뜻을 되새겨 여법한 총림 도량으로 요건을 갖춰 새롭게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양사 총림 해제 수습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백양사 중진 스님 20여 명이 긴급히 모여 구성을 논의했다. 방장 지선 스님 문도와 주지 토진 스님 측을 제외한 승랍 20년차 이상 전 대중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이 중 11명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한편 前 방장 지선 스님의 상좌 일수 · 법신 · 석장 · 법경 · 법주 · 법구 · 법공 · 법홍 스님과 손상좌 혜장 · 혜오 · 혜광 · 혜문 · 진견 · 현광 · 자재 스님은 11월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참회의 뜻을 밝히고, 총림 재지정을 기원했다.

15명의 지선 스님 상좌, 손상좌 스님들은 성명서에서 "총무원의 개선요청 시한이 아직 남아있었고, 고불총림 스스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소명과 협의 절차 없이 총림해제가 결정됐다. 백양사 문도들은 총림 구성 요건에 대한 미비사항이 총림해제의 주요 원인이 된 것이 아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백양사의 총림 해제에 대해 참회한 스님들은 "만암 · 서옹 · 수산 대종사로 계승되는 고불총림은 백양사 문도들의 명예이며 자부심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고불총림이 복원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불교성전 초안 검토 '사업 잰걸음'

성전편찬추진위 11월 23일 양평서 워크숍

조계종이 진행하는 종단본 불교성전 편찬을 위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불교성전편찬추진위원회는 11월 23~24일 양평 현대종합연수원에서 〈불교성전〉 초안 검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1박 2일간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임위원과 기획위원, 전문위원들이 모여 논쟁을 하며 내용의 선별과 배치,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불교성전편찬사업은 4월 18일 불교성전편찬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상임위원(16명)과 기획위원(9명), 전문위원(6명) 등이 위촉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상임위원과 기획위원, 전문위원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불교성전의 편찬 체제 및 목차 구성의 틀을 논의했으며, 각 목차에 들어갈 주제어를 선정, 주제어에 알맞은 내용을 발췌해 왔다.

편찬추진위 측은 "이번 워크숍의 결과물로 불교성전의 초안이 구성될 것이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불교성전의 초고가 완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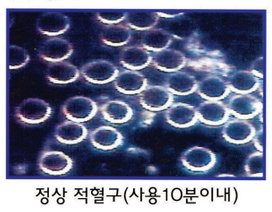
일상 속에서 조석으로 써야하는 필수생필품인 비누(BLOOD MATE®), 치약(ORAL MATE®)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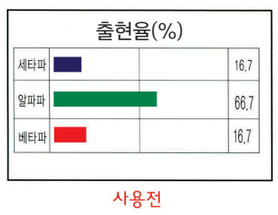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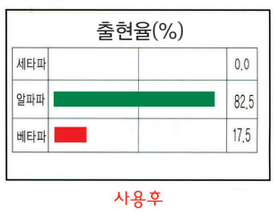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놔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사용전

발모촉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사용전

제거 현상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ORAL MATE®(치약)는 지구상에 살고있는 모든 사람들은 양치후 뱉어내고 구강건강을 위해 별도로 잇몸을 관리하고 있으나
ORAL MATE®(치약)는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먹으면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으며
과식, 과음으로 속이 불편할때 양치후 먹으면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지며
특히 구강건강 (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 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 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